



남원시는 2017년도를 관광객 500만명 뛰어넘기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관광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동안 남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450만명~ 480만명을 맴돌아 왔다.

남원관광 500만명 시대 연다

시, 스탬프 투어·내일로 기차여행·맞춤식 공연상품 등 활성화 하기로

남원시는 2017년도를 관광객 500만명 뛰어넘기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관광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동안 남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450만명~ 480만명을 맴돌아 왔다.

특히, 남원시는 고품격에 따른 무료 관광수요의 증가추세에 대처하면서 지역경제와 연계한 유료관광 요인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남원시는 '짧은 관광 시대를 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년층 관광객 유치에 일층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방문 관광지를 확인하여 5개 이상의 관광지를 다녀온 관광객들에게는 방문 기념품을

를 제공하는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레일 주관 여행사와 협력하여 대학생 등 청년 관광객을 유치하는 '내일로 기차여행' 상품도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수확여행단을 위한 '맞춤식 공연상품'도 운영한다. 그동안 단체관광객의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주 5회씩 운영해 왔던 춘향테마파크 상설공연은 앞으로는 사전 예약된 수학여행단과 단체관광객의 일정에 맞춰 공연을 상연함으로써 수학여행단과 단체관광객들에게 남원의 공연상품을 필수코스로서 포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관내 시티투어를 희망하는 노인

층 관광객들에게는 자원봉사형 '투어 가이드'를 운영한다. 투어가이드들은 관광지까지 버스를 안내하고 이동지점의 해설예약과 희망하는 경우 구석구석 골목여행과 맛 집을 안내하는 등 체험형 관광여건을 늘리는 역할을 맡는다.

남원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역에서 은퇴한 교장단으로 구성된 수학여행 자원단이 2016년 말 부산, 경기, 대전, 강원 지역의 100여개 학교를 방문하는 등 선제적인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또, 1월부터 160명으로 구성된 '전국 대학생 남원관광 SNS 홍보단' 활동을 전개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관광객 500만명 유치 플랜

향기터널 이색 시티 완공 등

순창군이 대폭 늘어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올해 500만 관광객 유치 고삐를 풀고 본격 나선다.

군은 지난해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40만명 정도가 순창을 방문한 걸로 집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향가 오토캠핑장 주변에 파노라마 LED야간 조명과 향기터널 이색 시티를 완공해 야간관광객 유치에 신포탄을 쏘아 올렸다.

올해는 더욱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선보일 계획이다. 팔덕면 구룡리에 19,777㎡부지에 실내의 마장 등을 갖춘 승마장이 오는 6월 경에는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특색 있는 승마장 운영을 위해 동물체험장 및 편의시설 설치도 계획 중이며 유소년 승마단 등 학생들을 위한 특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섬진강 주변 용굴산도 올해부터는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용굴산에는 이미 50ha에 편백나무를 중심으로 목본류 25만주, 원추리를 중심으로 아생화 50만주가 식재된 용굴산 치유의 숲이 조성됐다. 봄부터는 아생화가 본격 개화해 올해부터는 관



객이 본격 불릴 것으로 보인다.

15억을 투자해 자생식물에 대한 체험 문화공간이 될 자생식물원도 2015년부터 추진해 올해 완공될 계획이며 장군목 일원을 산림문화 휴양관광지의 거점으로 만들 용굴산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도 진행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외에도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에는 7가지 건강을 테마로한 약용작물이 식재된 의농업체험관과 건강에 좋은

디저트와 요리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식문화 실습관도 지난해 완공돼 올해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는 등 2017년 순창군의 관광자원이 대폭 강화된다.

여기에 국내 270미터 최대규모 체계 산 구름다리설치와 강천산 응용온천수를 테마로한 수체험센터도 본격 개발 계획이어서 군의 500만 관광객 유치를 견인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AI 선제적 차단방역 총력

철새모니터링 실시·철새 예찰·폐사체 관리 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난달 9일 신립면 종오리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민·관·군의 총출동 협력체제로 한 건의 추가발생 없이 AI 선제적 차단방역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군은 AI는 전국적으로 지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발견된 고양이 번사체에서도 고병원성 AI 확진 소식이 들려 AI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가정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경우는 AI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현재 전남 영암에 있던 철새 6만여 마리가 동립저수지로 추가 이동하

를 총동원해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29일에는 군부대 제독차량으로 동립저수지 주변 및 4개면(흥덕,성내,신림,부안) 가금농가 진입로를 소독하기도 했다.

박우정 군수는 "이달 중순까지 동립저수지 주변 농경지에 범서 1톤을 2회에 걸쳐 철새 먹이주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립저수지 주변 농로에 대해서는 군 방역차량을 비롯하여 축협 공동방재단, 흥덕농협광역방제기 등

을 총동원해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29일에는 군부대 제독차량으로 동립저수지 주변 및 4개면(흥덕,성내,신림,부안) 가금농가 진입로를 소독하기도 했다.

박우정 군수는 "이달 중순까지 동립저수지 주변 농경지에 범서 1톤을 2회에 걸쳐 철새 먹이주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립저수지 주변 농로에 대해서는 군 방역차량을 비롯하여 축협 공동방재단, 흥덕농협광역방제기 등

/고창=김영식 기자

산림경영지도평가 최우수 선정

임실군산림조합 2년 연속·1600만원 인센티브 받아



임실군산림조합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실시한 산림경영지도평가에서 최우수(A등급)조합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 1천 6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산림경영지도원들의 산림경영지도 활동 평가와 산주·임업인 지원실적 및 산림경영지도 만족도조사 등을 종합평가해 최우수조합으로 결정된 것이다.

2년 연속 최우수조합 선정과 관련해 정인준 조합장은 "임직원들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해 이룬 성과이며 앞으로 임실군산림조합

이 전국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인준 조합장은 "2017년도 중 임실군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국고 5억원 지방비 2억원 자부담 3억원을 투자하여 임산물판매장 및 공판장조성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임실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흥수출하를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받기 위하여 조합이 입가의 선두에 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공판물류기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며, 임산물판매장을 통해 임산물판매를 촉진시키고 임실군을 주축으로 하는 동부산악권 물류기지를 조성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조합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의회 시무식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2017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에서 최인규 의장은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라는 슬로건 아래 합심하여 군민이 바라고 만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박우정 군수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 성실한 대안 제시로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께 힘써 이루어 내자"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서, 자체 성과 지표회의

치안활동 다양한 방안 논의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여성청소년계는 2017년도 4대약으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순창 만들기를 위해 자체 성과 지표회의를 가졌다.

여성청소년계장을 주재로 각 지표담당자가 16년 상·하반기 성과지표별 실적과 미진한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 17년도에는 보다 주민들에게 공감받는 치안활동을 펼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순창경찰서는 올 한해도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 이야기를 듣고 1:1 대면 설문조사를 하며 주민들이 실제로 불안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등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

고 노인·장애인·아동·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며 따뜻하고 공감받는 경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일섭 순창경찰서장은 "희망찬 새해에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각 분야별 담당경찰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4대사약으로부터 안전한 순창을 위해 유관기관 및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앞으로 주 1회 자체 성과회의를 개최하여 미진한 지표에 대한 향상방안과 4대사약 회와 근절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회의등을 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강북대 남원 부시장, AI 방역 현장 점검

지난 2일 남원시 제13대 부시장으로 취임한 강북대 부시장이 취임 첫날 AI 방역 현장을 점검하며 AI 청정지역 사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 부시장은 2일 오후 1시 30분 재난안전상황실 회의를 주재하며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5개 초소를 돌아보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다방면의 방역활동을 펼치기 위한 AI 조기 종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적극적인 방역 활동으로

AI 청정지역을 사수하고 있으나, AI의 확산 여부는 AI 발생지역과 인접한 비 발생 지역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AI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북대 부시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새해에도 자체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적인 방역대응을 지속 추진, 마무리될 때 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전통준장군 탄생 기념행사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전통준장군 탄생 161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전통준장군 탄생 16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현수, 현화 등 봉정 의식, 기념식, 특별기획전, 영화상영 등 전통준장군의 업적을 선양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자주와 평등의 숭고한 정신을 전승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 전통준장군의 출생지이며 보국안민정신을 최초로 천명한 '무장포고문'을 선포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 출발을 일인 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기념행사에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동계 시설재배 지도 만전

임실군은 한파주의보 발령에 따라 겨울철 시설하우스 기상재해 사전예방 지도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설정하고 동계 시설재배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폭설과 한파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하우스 고정근 설치 및 보강, 노후 하우스 시설 교체, 보강지주 2~6m 간격 설치, 휴작기 하우스 비닐 걷어내기, 급수시설 동파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설과 한파특보 발령 시 하우스에 쌓인 눈 쓸기를 비롯해 가온하우스는 커튼과 내부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 가동하기, 하우스 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등을 실시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생육부진 작목은 옆면 시비하고 보온재를 이용한 소형터널을 설치하며 파손된 시설은 지주보강 등 신속한 응급복구에 나서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많은 눈과 한파에 예상되는 만큼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장지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북흥면, 신년 하례회 개최

순창 북흥면이 3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기장 및 사회단체장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회를 갖고 면민화합과 면 발전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북흥면 면민회(회장 전재성)에서 마련한 행사다. 하례회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김중섭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전재성 면민회장, 김춘식 노인회장 등 초청인사와 북흥면 기관·사회단체장, 주민들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고 새해 북흥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논의했다. 또 떡국행사도 진행돼 면민들이 정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황숙주 군수는 "정유년 새해 북흥면민들의 단합과 안부를 다짐하는 신년하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올해도 북흥면민과 순창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이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